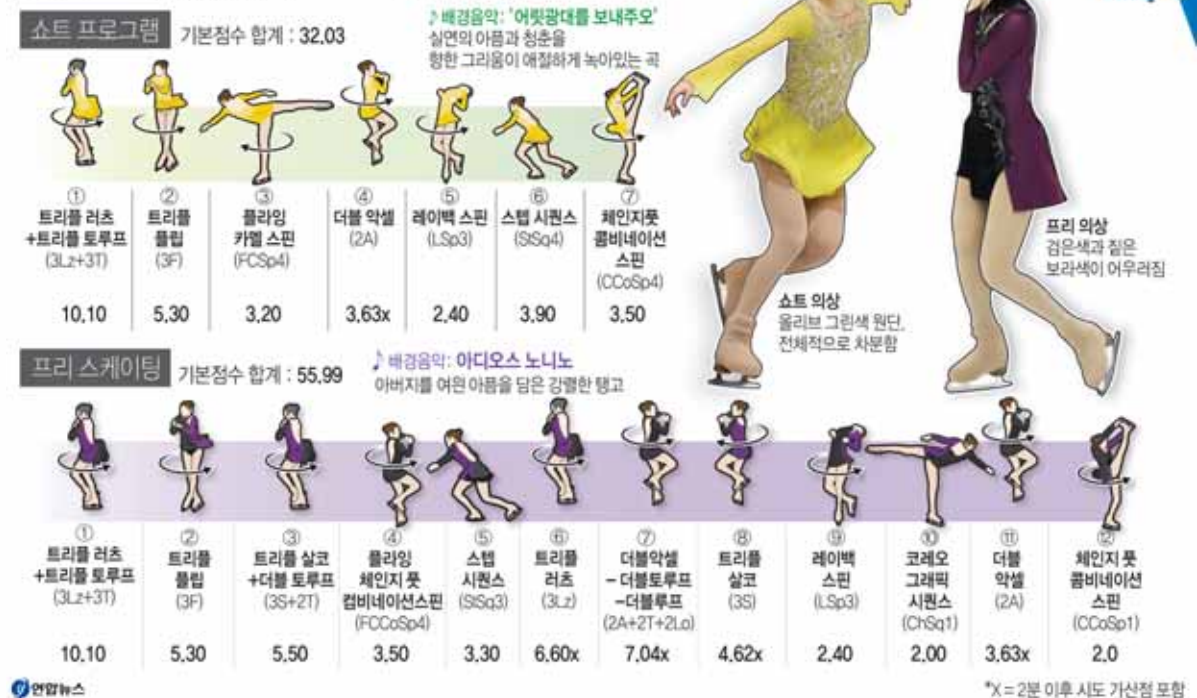


“겨울왕국을 녹여주소”

오늘밤 피겨 쇼트 시작...김연아·리프니츠카야·아사다 ‘피겨 삼국지’

김연아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프리 연기 순서



“김연아의 올림픽 2연패를 막을 방법은 대형 실수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역대 피겨스케이팅 스타들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김연아(24)의 압도적인 우승을 점쳤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크리스티 야마구치(43·미국)는 18일 미국 CBS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김연아와 러시아의 신성 올림피아 리프니츠카야의 양강 구도가 된 이번 대회의 변수는 ‘실수’라고 전망했다.
 야마구치는 “김연아가 실수해야 리프니츠카야 이길 수 있다. 올림픽 챔피언을 물리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김연아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있다고 밝혔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미셸 란(미국)도 김

연아의 우위를 전망했다.
 란은 폭스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김연아가 모든 점프를 잘 마무리한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프니츠카야가 김연아와 함께 훈련하지 않는 것도 비교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란 역시 실수라는 변수는 전체적인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연아는 ‘결전’을 하루 남기고 경기가 펼쳐질 메인 링크에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쇼트프로그램 경기에 대비했다. 김연아는 18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공식 훈련에 참가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와 같은 3조에 속한 나머지 5명의 선수 중 아네 리네 게예르센(노르웨이), 엘레네 게데바 니시빌리(조지아), 나탈리 바인저(독일)가 김연아와 함

께 링크 위에 서서 훈련했다.
 19일 열리는 쇼트프로그램에 대비해 이날은 ‘어릿광대를 보내주소’에 맞춰 훈련했다.
 세 차례 점프 과제는 소화하지 않은 채 다른 요소를 선보이며 빙질을 악히고 동선을 체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음악이 끝나고 숨을 고른 김연아는 더블 악셀 점프를 두 차례 시도한 데 이어 더블 악셀-더블 토틀루프-더블 루프 점프를 무리 없이 해내 점프 감각을 되살렸다.
 연습을 시작한 지 20분가량 지나 후반에 접어들자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틀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오르며 실전 준비를 마쳤음을 알렸다.



리프니츠카야

■ 최근 5경기 평균 점수 비교

첫 점프	
1 김연아	11.69
2 리프니츠카야	9.95
3 아사다 마오	5.18

3개 스핀	
1 리프니츠카야	12.96
2 아사다 마오	12.20
3 김연아	11.99

예술점수	
1 김연아	73.37
2 아사다 마오	68.94
3 리프니츠카야	66.56



아사다 마오



김연아 쇼트의상

광주등 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